"항암 끝내고 회복중 입니다"

배우 안성기

2019년 혈액암 완치 후 재발
최근까지 2년 넘게 투병생활

하루 1시간 걷기·웨이트 운동
TV로 작품보며 복귀 의지

'국민배우' 나를 바른길로 인도
건강 회복해 다시 돌아오겠다

'국민 배우' 안성기는 지난해 혈액암으로 투병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때때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스크린을 통해 만나왔던 안성기가 아니었다.

항암치료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져 가발이나 모자를 쓰고 있었다. 부은 얼굴 위로는 암 투병의 그늘이 드리워진 듯했다.

그에게 '국민 배우'라는 수식어를 붙여준 팬들은 그가 속히 병 치료를 끝내고 다시 모두 앞에 나타나기를 염원했다. 이제 그런 바람이 서서히 이뤄져 가고 있는 걸까. 23일 서울 중구 신영균예술문화재단 사무실에서 만난 안성기는 넉 달 전 한 행사장에서 인사를 나눴을 때와 확연히 달라 보였다. 얼굴 부기가 많이 가라앉은 상태였고, 표정은 한결 밝아 보였다.

그가 근황을 얘기할 때면 검은색 야구모자 아래로 미소가 번졌다. 특유의 따뜻한 웃음도 되찾은 모습이었다.

그는 인터뷰 동안 선명하고 또렷한 목소리를 내고자 중간중간 목청을 가다듬기도 했다. 안성기는 요즘 건강 상태를 묻는 말에 야구모자를 슬쩍 들어 올리며 안쪽을 보라는 듯이 가리켰다. 머리 위로는 흰 머리칼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다. 몸 상태를 되찾아가고 있다는 뜻이었다.

기자가 "항암치료가 끝나니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는 거네요"라는 말을 건네자 그는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건강이 많이 회복됐습니다. 컨디션도 좋고요. 많이 돌아다니지는 않아도, 매일 하루 한 시간씩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헬스클럽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암 투병 이전의 안성기는 철저한 몸 관리로 유명한 배우였다. '인정사정 볼 것 없다'(1999), '무사'(2000), '실미도'(2003) 등에서 다부진 모습은 운동의 결과물이었다.

안성기는 "트레드밀(러닝머신) 위를 30분 정도 걷고, 나머지 30분은 (무거운 기구를 활용하는) 웨이트를 한다"고 운동 방식을 설명했다.

그에게 "웨이트가 무리는 되지 않느냐"고 물으니 "전혀"라는 답이 돌아왔다.

안성기가 혈액암 진단을 받은 것은 2019년의 일이다. 곧 치료에 들어갔고, 2020년 완치 판정을 받았다. 그는 3개월, 6개월 단위로 병원을 찾아 몸에 이상이 없는지 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암 재발이 확인됐다. 이후 2년 넘게 암 투병의 고통이 다시 그를 덮쳤다.

"병원에서 조혈모세포 치료를 하자고 했는데, 그것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어서 고사를 했습니다. 고사할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그 과정(치료)을 다시 했습니다. 아주 힘들었습니다."

1957년 '황혼열차'의 아역으로 영화계에 데뷔한 안성기는 올해로 데뷔 67년 차를 맞았다. 그에게 평생의 일터로 삼았던 '영화 현장'이 그립지는 않은지 물었다.

"많이 생각납니다. (웃음) 집에서 TV를 통해 그동안 못 봤던 작품들을 쭉 보고 하니까,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나네요.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작품을 해야겠죠."

암 투병 이후 사실상 연기 활동을 중단했지만 작년에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촬영을 마쳤던 '아들의 이름으로', '카시오페아', '한산: 용의 출현', '탄생' 등 네 작품을 한꺼번에 관객에게 선보였다.

가장 최근 스크린에 오른 '탄생'에서는 '수석 역관' 역을 맡아 관객과 조우했다. 13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해온 그는 배역에 대한 갈증은 더는 없다고 했다. 수많은 작품 속에서 워낙 다양한 캐릭터를 맡아왔기에 이제는 주어진 역할, 거기에 맞는 연기를 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못 해봐서 하고 싶은 역할은 없어요. 제가 대통령도 해봤잖아요."

그는 반세기 넘게 배우로서 살아온 삶을 "후회한 적은 없다"면서도 '국민배우'라는 호칭은 부담이 됐다고 떠올렸다. 하지만 그 수식어 하나가 인생살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회고했다.

"(배우라는 말 앞에) '국민'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니 확실히 부담되긴 했어요. 거기에 맞는 무언가를 해야 할 거 같고요. 그런데 결국 '국민배우'라는 호칭은 저를 좋은 쪽(방향)으로 안내를 해줬다고 할까요."

안성기는 자신의 건강을 걱정해온 팬들에게 "기다려달라"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다. 새롭게 준비하는 작품은 아직 없지만, 건강을 회복해 스크린에 꼭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보기에 아직은 몸 상태가 조금 못 미치는 거 같습니다. 올해가 지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서 좋은 작품이 나오기를 기대해주셨으면 합니다." /연합뉴스

제이홉도 군대 간다

BTS 맏형 '진' 이어 두번째 입영 연기 취소 신청

그룹 방탄소년단(BTS·사진)의 제이홉이 맏형 진에 이어 팀에서 두 번째로 입대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26일 "제이홉은 입영 연기 취소 신청을 마쳤다"며 "군 입대 관련 후속 소식은 추후 정해지는 대로 안내해 드리겠다"고 전했다.

제이홉의 입대는 방탄소년단 멤버 가운데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복무 중인 맏형 진에 이은 두 번째다.

1994년생으로 광주에서 태어난 제이홉은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만 30세가 되는 2024년 연말까지 입영이 연기돼 있었다. 제이홉은 앞으로 입영통지서가 나오는 대로 현역으로 입대한다.

제이홉은 지난해 7월 솔로곡인 '모어'(MORE)와 앨범 '잭 인 더 박스'(Jack In The Box)를 내놓고 일곱 멤버 가운데 처음으로 공식 솔로 활동에 나선 바 있다.

그는 같은 달 미국 대형 음악 축제 '롤라팔루자'에서 한국인 최초로 헤드라이너(간판 출연자)로 무대에 올라 공연을 펼쳤다. 제이홉은 최근에는 세계 정상급 명품 브랜드 루이뷔통의 하우스 앰버서더(홍보대사)로 발탁돼 패션계에서도 활약했다.

빅히트뮤직(하이브)은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2025년부터 팀 활동을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공언한 바 있다. /연합뉴스

초고화질로 돌아오는 'TV 문학관'

KBS, 20여편 선정…다음달 5일부터

1980년대부터 30여 년간 사랑받았던 KBS 'TV 문학관'이 UHD(초고화질)로 다시 돌아온다.

KBS는 공영방송 50주년 특집 영상 복원 프로젝트로 다음 달 5일부터 'UHD로 만나는 TV 문학관'을 편성한다고 24일 밝혔다.

'TV 문학관'은 198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 근현대 문학작품을 영상화한 드라마 시리즈다.

이번에 UHD로 새롭게 선보이는 작품들은 근현대문학의 대표 작가들 작품을 중심으로, KBS 유튜브 채널 '옛날티비'에 공개된 작품들의 조회 수를 기반으로 20편을 선정했다.

첫 번째 작품은 '산골 나그네〈사진〉'(원작 김유정)로 70·80년대 여배우 트로이카로 사랑받은 배우 정윤희의 모습을 선명한 화질로 만나볼 수 있다. 또 '장마'(윤흥길), '카인의 후예'(황순원), '물레방아'(나도향), '꿈'(이광수), '감자'(김동인), '젊은 느티나무'(강신재) 등의 작품을 통해 김영철, 김혜수, 정보석 등 사랑받는 배우들의 청춘 시절 모습을 볼 수 있다. /연합뉴스